

소냐를 생각하면서

고대진

소냐를 만난 것은 한 1993년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였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도 안 계신 교회에 소냐가 나타났다. 한국말은 서툴지만 교육부 전도사님이 되어 보수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민 2세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곳 신학교에서 그의 신랑 테드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한글학교에서 한글도 배우고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초 중 고등부를 세우고 대학생부의 성경공부반도 만들어 그녀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퍼스(lupus)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창백한 얼



1989년 도미. 《미주문학》, 《창조문학》, 미주 《중앙일보》를 통해 등단. 현 텍사스 대학 생물 정보학 교수.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굴에 가끔 홍반이 돋기도 했으며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난 병실을 자주 들릴 수 있었는데 그녀는 병상에서도 전혀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한국을 알려고 했고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카운슬링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냐를 잘 따랐다. 그 중에 내 아이도 소냐를 잘 따랐는데 아마 소냐의 사랑을 잘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

전도사 일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위해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고 나서 소식이 끊겼는데 갑자기 소냐에게서 리치몬드에 내려와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 2002년 봄이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들은 그녀의 지난 몇 년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일들의 연속이었다. 목회자로 활동하던 남편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목회를 그만둔 일에서부터 이혼 그리고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이 마비된 일…… 그래도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녀의 부모가 계신 매리랜드로 돌아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도 반신을 잘 움직일 수 없지만 겨우 걷고 또 손으로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나는 아직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역설적이게도 내 논문의 제목이 ‘고통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이거든……”

대화 중에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소냐의 의지와 희망을 볼 수 있어서 소냐를 보내면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집으로 가면서 소냐가 웃으면서 말했다.

“난 혼자이지만 아직 젊고 예쁘고 하고싶은 일들이 많아.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가슴앓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생각해보면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해도 모자란 형편인데도 소나는 항상 긍정적인 쪽을 보고 있었으며 또 남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인생을 보고 있는 소나의 마음이 내 누이같이 여겨져 언젠가 소나의 삶을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뒤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곧 리치몬드에서 다시 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 테드가 남겨놓은 전화를 걸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루퍼스에 걸린 소나가 또 많이 아프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척 불안했다. 전화를 받은 테드는 울음으로 대답을 못한다. “소나가 그만 우릴 떠났어. 영원히…….”

엄마와 오랫동안 오페라를 보고 행복해 했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보내고 베란다에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른 다섯의 생일을 막 보낸 날이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많이 아파한다. 언젠간 우리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아파하겠지. 피할 수 없는 이별이라도 이별은 슬픈 것이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만날 것이란 생각을 하면 이별은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서 맛보던 아픔과 안타까움이 사라진 평안과 행복에 둘러싸인 만남이라면…… 아마 소나는 세상이 그래도 희망은 있고 그래도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할 것 같다.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둘)*

—소냐(Sonya)에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나의 생각은 너에게만 멈춰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이 시간으로 내리고 싶다

혼자 멈추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적한 시골 역 같은 '지금'이라는 정거장에 날
슬그머니 내려놓고
연기를 뿜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겠지만
멀어지는 파아란 별에
너를 두고 혼자 내린 내 가슴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겠지
지금의 내가 어제로 돌아갈 수 없듯이
내일의 너는 지금으로는 결코 올 수 없겠지

멈추는 순간은 영화 273도
모두를 얼리는 절대온도
너의 눈물
나의 눈물
우리의 사랑까지도
박제된 물고기

느려지지 마
멈추지 마 가슴아

번쩍이는 번갯불

전자들의 춤

꿈은 훨훨 날개 달아 오르고

나는 또 내일로 걸어가야 한다

* 심장의 박동이 느려져 멈추려 할 때 전기자극을 주어 다시 정상맥박을 회복하게 하는 기계.

내 사랑, 이루어지길

노기제

산행을 함께 하는 회원들에게 내가 말했다. 인간의 스침이 없는 순결한 첫눈을 밟으면 기원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12월 둘째 일요일이지만 아직 앞뜰의 단풍이 완전한 옷갈이를 끝내지 않아 내 집 앞은 가을이다. 그러나 어젯밤 가을의 꼬리를 물고 나타난 초겨울 비가 제법 사납게 가을을 밀쳐 내는 듯 했다.

밤새 바람을 동반한 세찬 빗소리를 들으며 이튿날의 산행을 거의 포기했었다. 더구나 다음날까지 이어진다는 비 예고가 회원들 마음에 확실한 산행 결심을 주지 못했던 실정이다. 회원들이 새벽부터 주고받던 확인전화 후에 반짝 개인 하늘이 우리 마음을 부른다. 넉넉히 웃어주는 밝은 해가 내 얼굴 밟고 산으로 가라고 확신을 준다.



《문학세계》 수필 당선, 《한국수필》로 등단, 제4회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 수상.

등산로 입구까지는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이동하던 중 살짝 얼어버린 도로에서 한두 번 미끄러짐, 뱅그르 돌면서 아찔한 순간을 당했다. 순간 유월에 있었던 차 사고를 상기했다. 아니 또? 이건 아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는 안 당할 거다. 막무가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싫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빠른 손놀림으로 차는 다시 제 길로 들어섰다.

비 온 뒤 산에 쌓인 첫눈을 밟게 된 기쁨으로 산행에 동참한 회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환호성이다. 비 맞을 각오하고 산에 오른 것은 축복이라며 한마디씩 보태어 행복을 빙글린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순결한 첫눈을 밟으면 기원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부인을 동반한 60대 회원이 얼른 동참한다. 자기 사랑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사랑을 가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니까.

제한된 인간관계로는 사랑을 하며 살 수가 없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게 내가 이루고 싶은 사랑이다.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게서 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해 본다. 앞으론 그들에게도 따뜻하게 웃어 주고 싶다. 내가 싫어하던 어떤 면을 감싸보자. 이해하려 않던 내 생각을 바꾸자. 누가 뭐라 해도 옳다고 생각한 내 판단의 기준을 지워버리자. 백지로 남겨 두고 하나씩 포용해보자.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내가 사랑할 만하진 않아도 누구나 한 두 가지 좋은 면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 눈에 띄지 않던 그들의 좋은 점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곤 그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야 내가 푸근하고 넉넉한 사람이 된

다. 그러면 누구보다 내가 편안해진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가 불편했을 뿐이다. 평안하지 못했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앞에선 친구였는데 뒤에선 가면을 쓰고 혈뜬던 사람을 모임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다. 그의 가족도 동행했다. 아는 척 할까? 말까? 난 네가 내게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빈정대고 싶었다. 가족 앞에서 망신을 줄까? 그렇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할까? 나와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 모습에 측은한 맘이 든다. 억지스레 나를 혈뜬던 때엔 뭔가 심사가 뒤틀렸던 모양이라고 덮어주자. 이왕 모임에서 만났으니 유쾌하게 분위기 조성하며 그와 팀웍을 이루어 우리가 되어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 만나서 괴로우니라. 범구경에서 읽은 구절이 내겐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껏 가지고 미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고자 마음만 고쳐먹으면 어렵지 않게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세상에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더러는 내가 싫다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더러는 내가 못 마땅해서 가위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굳이 빈정대며 나를 깎아 내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주자. 구태여 아니라고 반박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억울하고, 분이 나고, 창자가 뒤틀리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보내면 다시 측은한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면 난 얼마든지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자꾸 기억해 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보면 결국은 이해하게 되고, 껴안을 수 있게 되겠지.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해 보니 그 어느 것도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깟 욕 좀 하면 먹어주자. 행여 내가 속해 있는 어느 단체의 회원 중에 그 동안 합당치 못하게 내게 내침을 당했던 회원들이었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자. 나만이 아는 이런저런 이유가 머리를 스친다. 그러나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누구를 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늘 하루 내게 신설을 밝게 해 준 산을 다시 돌아본다. 내 마음이 하얗게 표백되었다.

시간은 자꾸만 지나가는데

박영보

막무가내로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정리하는 중 꼬깃꼬깃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큰 아이의 현재 나이로 볼 때 적어도 이십사오 년은 더 됐을 것 같다. 내용을 읽어보니 세월의 빠른 흐름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큰아이 완이가 초등학교 일학년이나 이학년 때쯤의 이야기인데 이곳의 일간지에 실렸던 내용이었다. 완이는 이 동네의 리틀리그 팀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주로 투수를 맡고 있었지만 가끔 유격수나 이루수로 기용되기도 했었다. 5승 무패의 등판기록으로 이 지역 리그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이어오다가 첫 패배를 당하고 마운드를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나서 쓴 글이었다. 원고를 보낼 때는 아



《창조문예》 시부문 등단, 《문학세계》 수필부문 신인상, 《현대시조》 신인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무 제목도 붙이지 않았는데 신문사에서는 임의로 ‘자부심을 키우며’라는 제목을 붙여서 올려졌던 내용이다.

종반전에 접어든 리틀리그에서 처음으로 패전투수가 된 큰아이가 고개를 떨군 채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5승 1패. 투수로서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다. 그 에이지 그룹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승률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오늘의 패배에 마음이 아픈 모양이다. 원래가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아 자기표현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승리투수로서 마지막 타자를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 승리투수가 되고도 겸연쩍게 썩웃 웃고 마운드를 내려서는 게 고작이기도 하다. 두 손을 크게 벌리고 환호하며 동료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미국 아이들과의 다른 점이기도 하다.

허나 요즈음에 와서 자기의 몫을 다하려는 의지와 책임을 미루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날의 히어로가 되려는 무리를 범하지 않고 자제력을 보일 때마다 부모로서의 마음은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참으로 큰 변화이기도 하다. 작년 이 무렵 얼마나 마음을 조려왔던가. 안타를 치고 나갔다가 득점을 하고 들어오면 코치를 비롯한 팀 동료들이 환영을 해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덕 아웃으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아버리기 일쑤이고 자기 팀 공격 시 타자를 위한 응원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아이였다. 친구들과 마주칠 때 그들이 “하이, 완이” 하고 인사를 해와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지나치기가 일쑤여서 민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시합 중에 작은 에러라도 한번 범하게 되면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수를 연발하고 게임에서 패하면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이었기나 한 것처럼 온종일 우울해하기 일쑤였다. 피치마운드에 서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눈을 계속 깜빡거리거나 입을 불안하게 쥔것거리 코치나 동료는 물론 관전하는 학부모들까지 “무슨 일이냐”라며 걱정을 해오기도 했다.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서 그런가보다고 하면 “다저스의 더스티 베이커처럼 휴일

검을 씹어보라”고 할 때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고 차라리 야구를 그만 두게 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었다.

다른 아이들은 실수를 범하거나 게임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느긋하게 잘도 넘기는데 완이만이 자제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다. 하기가 금년 시즌 초에도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됐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실력이 향상되면서부터 그러한 버릇이 점차 없어졌고 게임에 임하는 자세도 안정돼갔다. 정기적인 연습이나 시합이 없는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의 야구장에 나가 피칭과 배팅에 수비 연습까지 시켜오기도 했었다. 그런 결과인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팀에서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 듯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실수를 범해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도 생긴 것 같다. 게임을 꼭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에서도 벗어난 듯하다. 오직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시즌 초반의 타율 0.465이던 것이 후반기에 들어와 0.300 대 이하로 떨어져 타순 2번이나 3번에서 6번으로 밀려나자 “I’m in a slump”라고 말해 주위사람들을 웃기더니 그날 게임에서 네 번 나와 한 번은 사사구로 걸어가고 세 번 모두 안타를 친 백 퍼센트의 출루율을 기록하며 타점과 득점을 올리기도 했다.

리틀리그, 그토록이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완이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솔선하려는 성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케 해준 셈이다. 이제 남은 두 게임만 치르면 금년 시즌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 아쉬움이 많아진다. 완이는 완이대로 친구를 사귀고 또 부모들끼리도 교분을 나눌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스탠드에서의 환호나 응원 소리를 이제 작년처럼 풋볼 구장으로 옮겨야 할 시기에 와 있음을 실감케 된다. 조그만 타운이지만 백화점이나 공원 또는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이 완이 부모가 아니

냐?”라고 인사를 청해올 때마다 촌스러운, 그러면서도 소박한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어느 사이에 완이는 이곳의 조그만 별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부심을 키우며」 전문

미국 아이들보다 체격이나 체력 면에서 약간 처지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신경이 쓰이던 일이 생각난다. 어쩌면 완이 자신도 그런 점에 심적으로 위축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실력이라는 인식을 시키는 일이었다. 실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하학 후나 주말에는 공원 야구장에 데리고 나가 연습을 시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학교 다닐 때 야구는 물론 체육시간 외에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내 주제에 야구 과외공부를 시킨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구를 좋아하는 내가 미국의 프로야구 관람이나 TV 시청을 하며 각 포지션마다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교육의 자료로 삼을 수 있었고 아마추어 코치의 흉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운동은 힘과 기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일도 잊지 않았었다.

피칭연습을 시키자면 나는 캐치가 돼야 한다. 캐치미트도 없으니 야수용 글러브를 쓰는 수밖에 없었고 싱 가드도 없이 볼을 받아야 했으니 노출된 양쪽 다리는 무방비 상태였다. 폭투가 되어 불규칙적으로 튀어 오른 바운드 볼에 맞는 일이 많아 양쪽 정강이에는 멍이 지워질 날이 없었다. 어떤 때는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맞았을 때는 뼈속까지 찌시는 듯한 통증에 시달려야할 때도 있었다. 아무리 리틀리그 아이의 투구이지만 그 스피드와 파워는 야수용 얇은 글러브를 통

해 스며드는 통증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손바닥은 새빨개지고 흐물 흐물 부어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던 아이가 이제 서른이 넘었고 가정을 이루어 우리 곁을 떠나 버렸다.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적인 면이 강한 작은 녀석도 장래를 위해 세워놓은 새로운 목표를 위한다며 하와이로 떠난 지 이 년이 되었다. 야생의 동물들도 혼자서 먹이를 찾고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생의 능력이 생기면 더이상 부모의 곁을 맴돌지 않는다. 이런 데 비하면 사람은 이들 동물보다도 훨씬 미개한 것 같다. 이런 동물들에 비해 사람은 훨씬 긴 세월 동안을 부모라는 우산 밑을 맴돌고 있으니 말이다. 자생력이 생기면 떠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어쩌면 부모가 보낸 그 많은 세월은 곧 이를 위해, 즉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희생’이라는 말로 생색을 내려거나 무슨 대가 같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가끔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붙들어 매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요즈음 들어 남아있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다가오는 마감의 시간에 대한 초조감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일 게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춘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꼭 해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무엇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이리라. 여기에 또 실천을 해 나갈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정해두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빨리도 흘러간다. 석양의 붉은 노을을 바라다보고 서 있자니 지난날들이 생각난다. 조금 전이라거나 얼마 전이라던 것이 어느

새 십 년, 삼십 년, 육십 년 전의 이야기가 돼 버리고 있다. 이제까지 스쳐 지나간 세월도 그랬지만 다가서는 시간들의 속도도 여간 빠르지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요즈음, 녀석들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어렸을 적, 어머니나 할머니가 먼 산을 바라보며 자식이나 손자손녀들을 생각하며 서있던 것도 이런 마음에서였을까. 전하고 싶던 마음에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져있던 모습의 어머니나 할머니의 그런 마음들. 구석진 자리에 혼자서 궁상스럽게 지난 세월을 더듬고 서 있는 나 자신의 꼴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늙은이가 다 돼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나로 합친 얼굴

—안경 긴 초상화 3

배희경

그의 유품 속에 전리품같이 간직된 까만 테 안경과, 한국에서 갖고 온 누렇게 변색된 태극기를 오랜만에 꺼내 본다. 열고 짙은 색상이 그의 초상화 화폭에 번지기 시작한다.

선을 보기 위해 나타난 안경 쓴 남자. 공중에서 바람을 타고 내린 선풍이었다. 곧게 선 바지 줄로 키는 더 커 보였고, 얼굴은 코가 높은 지 아주 좁았다. 선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잊은 듯, 주위 한번 살피지 않고 아버지와 큰 소리로 대면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랬다. 그런 한참 후, 그의 눈이 번쩍 긴 방 끝자리에 앉은 나를 쏘듯 스치고 지나 갔을 때, 나는 그가 확실히 자기가 온 용건을 기억했구나 싶어 속으로 웃었다.



함남 함흥 출생. 중앙대학 학부 문과 2년 수료. 《문학세계》, 《한글문학》 수필 부문 당선. 글마루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선을 보고 난 얼마 후, 들어서 만났으면 한다고 전해 왔다. 피난 와서 살고 있는 구포 기차역 플랫폼에서 그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약간 들떠 있었다. 구포는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도시였고, 그 남자는 대구에서 부산에, 또 부산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와야 했다. 초봄이었다. 비벼대는 나무 잎새들이 연두색 소리를 내고 있는 하늘 아래서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많은 객들이 기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나타난 것은 제일 마지막 칸에서, 그것도 아주 느린 걸음으로 내린 객이었다. 선풍 같다고 생각한 그에게 이런 느릿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를 다시 보고 있는 순간, 하늘이 기쁨으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항상 안경을 쓰도록 합세.” 내 어머니가 한 말을 그는 오래도록 기억했다. 자기의 예리한 눈을 감지한 말씀이라 했다. 남들이 자기에 게서 찬바람이 인다고 말하는 이유도 눈에 있었고, 부리한 눈이 번쩍 움직일 때면 걱정이 온통 눈에 옮겨갔을 것이라고. 어떤 여자가 와서 저 비위를 맞추며 살까한 기우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 눈의 위력을 감지하지 못한 어리숙한 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지킬 날이 있소. 하나는 내가 난 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날이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사는 이 집이지만 그에게겐 자기 한 사람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세상을 뜰 때는 자기를 다 지우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세월이란 처방약 탓일까. 아니면 험하고 긴 시련의 풍상이 희석해서 났을 때의 무구의 몸으로 돌아간 탓일까. 그는 성인같이 되어 세상을 떴다.

두 개의 얼굴! 하나는 신념으로 꼭꼭 짜여진 수공예품 같은 얼굴이

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수정(水晶)이 된 얼굴이다. 그 남자는 AB형이었다. 앞뒷면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하면 지나칠까…… 피카소의 그림같이 서로 갈린 얼굴에 못질하고 있다.

그가 세상을 뜬 후 한국에서 그의 큰형수가 다녀갔다. 내 만동서다. 남편과 싸우면 언제나 자기편이 되어주었던 시동생이었단다. 얼마나 허전할까 했는데 그를 빼어 닮은 손자가 자박자박 집안을 걷고 있었다. 빈자리를 메워준 것이 기뻐다 하셨다. 그 다음 일이 걸작이다. 동서가 웃으며 한 말은 내 손자와 놀며 일어난 일이다. 그 녀석이 모르고, 의자에 앉아계시는 그 분의 발등을 밟았다. 어찌나 아팠던지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녀석은 빙 돌아서서 다시 그 발을 밟고 건너가더란다. 확실히 그의 분신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손자는 손자대로, 처음보는 늙은 할머니가 나타나 집안 식구들이 절절 매는 것에 기분이 언짢았던 모양이다.

만동서는 가끔, 시동생인 내 남편의 어릴 적 일을 들려주셨다. 이런 일들이다. 그는 동네 아이와 싸웠다. 그리고 자기가 졌다고 생각되는 날이면 온 종일 그 집 마당에 돌을 던졌다. 농사일도 도왔고 나무도 했다. 빈 일이 없는 시아버님의 말씀이다. “사봉(애명)의 나무 한 짐이면 돼지 한 마리 잡을 수 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성실은 그의 성품이었다. 비례해서 그의 고집도 대단했다. 대학 진학도 만형의 강경한 권고를 물리치고, 수차례 재수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 학교로 들어갔다.

그런 얼굴 외에 그에겐 자기도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아니 당신에게 이런 재주도 있었소.” 그와 총각 때부터의 동료가 한 말이다. 아무도 상상 못한 재주를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다

만 어리벙벙할 뿐이었다.

환쟁이가 되다니—, 이북에 계신 그의 아버님이 들으시면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시골 훈장으로 공자 맹자만 가르쳤던 그분은 학문 외에 네 아들에게 던진 훈계가 있었다. 세 가지였다. “낙시질 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빈둥거리지 마라”였다. 그것은 공부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임에 틀림 없었다. 그랬는데 그 세 번째 일을 셋째 아들이 하게 되었다. 빈둥거린 것이다.

그는 월서 거리에 200불 달세를 내고 사무실을 구했다. 그 사람 자신이 조각한 “Antique repair”란 간판을 내걸고 골동품 수리상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단독으로 고안한 안이 아니었다. 그의 조카가 유학을 와서 부업으로 얻은 경험에서 삼촌에게 제안한 일이었다. 기회의 나라라는 말만 믿고, 예술에 대한 아무런 견식도 없이 시작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엄청난 재질이 숨어있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첫 번째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에 없지만, 한두 달 지난 후의 일이다. 하루 일하고 돌아와 보니 팔이 다 떨어진 15인치 높이의 불상이 탁상 위에 놓여있었다.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팔 열두 개 모두를 재생해 달라고 해서 맡아온 일거리란다. 우리네 불상은 팔이 둘이지만 동남아 불상은 팔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받아다 놓은 불상은 팔이 열두 개였다.

그 날부터 그의 연구는 시작됐다. 작업실에서 하루 해를 채우고 나오면 도서관에 들렀다. 부처를 연구하는 일이다. 불상들을 스케치하고, 어떤 것은 복사도 해왔다. 그런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팔을 만들고 그 끝에 각기 다른 형태의 손을 조각하는 일이었다. 두터운 돋보기를 쓰고 밤늦게까지 조각한 작품은 놀라움에 우리의 감탄사를 삼켜 버렸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쿵알만한

손은, 살아 숨쉬었고, 그는 신비를 창조했다.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경이는 도를 넘는 것이었다.

몇 달 후 그는 완성된 부처를 갖고, 목돈이 생길 기대에 부풀어 골동품상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 골동품상은 파산 직전이란다. 돈이 없어서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으니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부처 백을 주어도 60불 현찰과 바꿀 수 없는 사정이었다. 그러나 도리가 없었다. 그 조각은 우리 것이 되어 버렸다. 지금은 천금을 얻은 기분이지만, 우리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1970년대는 미국의 경제가 공황을 만난 거와 다름없는 시기였다. 더욱이 골동품은 사치장사였다. 우리도 일 년 여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다시 또 더한 옛날로 돌아간다. 이북에 부모를 두고 나온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 진저리를 찔던 수백만 명 중의 한 사람이다. 장기를 둘 때도 빨강, 청말 중에 빨강 말은 잡기 싫어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북에서 처형을 당했다 했다. 왜 이북에 들락거렸던 공작대원들이 이남에 있는 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더 부채질 했는지 모른다. 후에 알고 보니 모두 극적으로 지어낸 말들이었다. 처형당할 때 한 말 씀이라며 이렇게도 전했다.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넷은 이남에 살아 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의 부음을 듣던 그의 얼굴이 지금도 선하다. 그런 말을 들은 어느 아들인들 빨강 말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랜 후에 알았지만 그의 부친은 팔십 여 세까지 사셨으며, 미처 이남으로 데리고 나오지 못한 맏아들 손녀 셋을 데리고 갔은 고생과 탄식 속에서 지내셨다 했다. 빨래를 비벼댈 힘도 없어 빨래 방망이에 빨래를 걸치고 훌훌 강물에 행귀서 입으셨다는 전언도 있다. 남북이 왕래하기 시작했다는, 그가 그렇게도 고대했던 기쁜

소식도 세상을 뜬 후에야 들려왔다.

나는 태극기를 흔드는 세계 속의 붉은 악마들을 항상 감격해 바라본다. 그러다가도 가끔 그 사람의 태극기와 다른 것 같아 당황할 때가 있다. 손 다림해서 벽에 걸어놓고 감회에 젖던 그의 태극기는, 대중 집결의 충동적 표출이 아니라 뼈 속까지 사무친 연연한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였다. 우리 둘은 오류동 논두렁길을 걸으며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이 고장에 도시계획만 들어서면 우리는 가난을 벗는다. 지금은 휴지 값에 지나지 않지만 이만 여 평의 땅은 우리를 호강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꿈은 날아갔다. 기다리다 못해 지쳤고 가난을 견딜 수 있는 한계도 넘어섰다. 수중에 삼백 불이 남고 West LA의 아파트에 정착을 마친 것은 1970년이였다.

이후로 우리는 호강이란 욕망을 모조리 버렸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까 하는 생각만 했다.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것으로 기쁘고도 남았다. 기대와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다. 밀창이 달아본 일이 없었던 구두의 주인공은 흙투성이의 밭갈이 소로 변했고, 신사구두를 신어본 지도 까마득한 옛 얘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고달프게 일하고 돌아왔어도 이 순간을 천국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아파트 리빙룸에 자연을 옮기는 작업부터 한다. 양철로 된 간판을 구해온다. 그 간판을 벽돌로 괴우고, 방구석에 밀어 붙인다. 아이들과 다니며 수집한 고목뿌리가 뒷산으로 변하고, 산 뒤에는 갈대가 성성한 자연 산림이 무색하다. 아래에 크고 작은 돌들을 눕히고, 바닥에 자갈을 깐다. 치렁치렁 물을 밟는다. 풀잎 뜬 강물이 있는 방구석에

서 이민자의 고달픔은 조용히 치유되어 갔다.

십 년 후다. 여섯 식구로 터질듯 했지만 내 집이었다. 그는 이제 또 오십 여 년을 눈에 달고 살아왔던 고향 땅, 방축(芳軸) 안에서 살고 싶었다. 집 뒤 한가운데 방 하나 들어설 공지가 있었고, 작업이 시작됐다. 시멘트로 된 밑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았다. 물 잘 타는 나무는 바닥에, 그렇지 않는 나무는 화분째로 배치했다. 심산유곡이다. 널판으로 상대를 만들었고 물 위에 술상을 보았다. 그러면 우연히 고물상에서 만난 낡은 수문장이 입을 떡 벌리고 지난날을 시설했다. 이제 그 자리에 방이 들어섰고, 그 정경은 가물가물할 뿐, 산천도 인절도 간데없는 옛 시조 말이 되어버렸다.

이런 정경들이 떠오르면 나는 손자들에게 말한다. 할아버지는 본래 농부였단다. 그래서 자연을 아주 좋아하셨어. 새 천지에 와서 막 일을 하면서도 성실과 정열과 신념으로 기쁘게 살다 가셨지.

하루 종일 친구 집에 돌을 던졌던 야멸찬 얼굴과, 예술적 재질로 빛났던 까만 테 안경 속 도도한 얼굴과, 자기를 다 지우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떠난 순교자 같은 얼굴이 하나로 합치는 순간이었다. 열고 짙은 색상으로 초상화는 그럭저럭 마무리 되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오정자

이른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 하나가 짙은 향기를 내뿜고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 꽃대를 실로 묶어주고, 물을 듬뿍 주었더니 이내 생기를 띠고 파릇파릇 되살아났다. 크고 넓은 잎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 순백의 꽃이 피는 스파티필럼이란 관엽식물인데, 강인한 생명력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뿌리를 얼리지 않으면 소생이 가능하다는 다년생 식물, 생명 있는 것들의 살아 있음은 아름다운 것인가. 그들은 내게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길 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싱그러운 향기를 온몸으로 피워 올리고 있다. 그 푸른 잎사귀와 하얀 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서 희망을 배운다.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던 나는 혈뇨와 단백뇨가 나오는 만성 신



《한국수필》 신인상.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논픽션 당선.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입상. 한국수필가협회, 한국수필작가회, 재미수필가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장염을 20여 년 간 앓아왔다. 그래도 두 해 전에 생긴 고혈압 외엔 별 다른 합병증없이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버텨왔다. 그런데 지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갈 무렵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이 반란을 일으켰다. 뻑뻑하면서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고,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면 좀처럼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잠이 모자라 그런 줄 알고 예사로 여겼다. 그런데 특하면 눈동자 주위가 빨개지면서 욕신거리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을 느끼면서 눈곱이 끼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는 중에도 한쪽 눈의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눈을 떠도 아프고 감아도 아팠다. 종내는 안과에서 ‘플러그’라는 것을 양쪽 눈에 시술받았다. 플러그는 눈물이 배출되는 구멍인 누점을 막아주는데 왼쪽 눈에 한개, 오른쪽 눈엔 상하 두개를 장착했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눈뿐 아니라, 온 몸을 송두리째 흔드는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뼈 마디마디를 울리는 무릎관절의 통증과 안구의 통증, 거기에다 머리를 옥죄이는 지독한 두통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극에 달해 끝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점차 마음은 건잡을 수 없이 우울해져 공연히 눈물이 나기도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두렵기까지 했다. 캄캄한 밤,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에 서 있는 심경이 이런 것일까. 게다가 분비샘의 손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에 넣어야 할 약 때문에 더러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어쩌다 다투기라도 한 날은 단박에 팩 토라져 약을 건너뛰곤 했다. 몸은 병들었어도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웅졸한 나를 발견하며 슬픔이 가슴 가득 차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거실 창가에 자리한 푸른 화초들에게 다가가 새로 돌아나는 연록의 이파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살거리는 꽃들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은 내게 힘을 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다.

소리없이 피어나는 여리고 순한 그들과 교감하노라면 어느덧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했던가. 법정스님의 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읽었던 구절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목소리로 서로를 분간하듯이 꽃들은 향기로써 서로를 분간한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식물들은 생각없이 내뿜는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보다 훨씬 고매한 품격을 지니지 않았나 싶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초는 목이 말라 시들어갈 때 무지한 나에게 향기로써 아픔을 전하지 않았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자못 부끄러워진다. 정성껏 물만 주면 축축한 물기를 빨아올려 싱싱한 잎사귀로 남국의 정취를 자아내고, 음이온을 방출해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 미움, 질투, 이기심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감사, 행복, 사랑, 희망의 씨앗을 심어 내 영혼이 맑게 피어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생각해보면 내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병의 가짓수가 열손가락으로도 모자라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일터로 나가 일을 하고, 저물녘이면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하루의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한 어김없이 도래하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사계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가.

이제껏 살면서 나는 공기의 소중함조차 모른 채 보고, 듣고, 말하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눈물도 툭하면 흘려 언제나 평평 솟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여러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는, 현대의학으로도 증상의 완화 정도 밖에 치료할 수 없다는 쇼그렌 신드롬(Sjogren's Syndrome)이란 자가 면역질환

환을 앓으면서 나는 달갑지 않은 그들을 껴안고 어르고 달래 살아야 하는 지혜를 저절로 터득하게 되었으며, 내게 다가오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예민하고 여린 감성은 늘 상처받기 십상이었고, 고지식한데다 결벽증과 완벽의 추구는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태산만큼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온 몸을 흔들어놓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심신을 혹사할 것 같아 경고한 것이 아닐까. 신은 내게 강건하고 겸손해지라고 이런 병을 주셨나보다.

고통과 아픔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암이든 난치병이든 모든 병의 극복은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연과 벗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희망을 가져본다. 문득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의 몇 구절이 떠올려진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중략)

눈 길

이동휘

나는 한국 남쪽지방에서 생활했기에 겨울이 되어도 눈을 자주 접하지 못하고 자랐다. 미국 가면 눈을 맞으면서 오솔길도 걷고, 눈사람도 만들어 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쩌다 눈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태평양 물결을 타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 겨울 정취를 느낄 수가 없다.

연초 휴일을 맞아 눈 구경을 하고 싶어 별 준비없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쪽으로 차를 몰았다. 여름과 가을엔 몇 번 가본 곳이다. 그러나 한번도 접하지 못한 평원, 나무숲, 구릉, 바위산 등이 백설에 덮여있는 풍경이 보고싶어 졌다.



《조선문학》 소설부문 신인상. 한국소설가 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대륙의 바람』 장편소설집 출판.

아직 종자를 뿌리지 않은 넓은 들판을 지나갈 때 먹이를 먹던 새떼가 무엇에 놀란 듯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수십 마리의 검은 새들은 공중을 한바퀴 비행하고 다시 밭으로 내려앉는다. 들판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니 먼발치로 보이는 산자락엔 하얀 눈이 보였다. 눈을 보는 순간 빨리 눈 위를 걷고 싶다는 마음에 오른발에 힘이 가해졌다. 나는 차 창문을 열었다. 차고 매서운 바람이 불을 스치자 온몸이 오싹해 오면서 짜르르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어릴 때 여름방학도 기다려졌지만 난 겨울방학을 더 손꼽아 기다렸다. 방학이 시작되면 기차를 타고 외갓집에 갔다. 외할머니는 큰 과수원에서 따 말린 달고 졸깃졸깃한 귤감을 맛있게 먹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 하얀 눈이 초가지붕 위와 넓은 들판에 수북히 쌓여있어서 형과 이웃 아이들이 모여 들판에서 눈싸움을 하고 놀기도 했고, 또 누가 큰 눈사람을 만드나 하면서 내 키만 한 눈을 굴리고 갈 때 느꼈던 그런 짜르르한 찬바람이 차안으로 들어왔다.

이 넓은 땅으로 건너와 나란 존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아들은 책과 씨름하느라 자연의 아름다움은 한번도 만끽하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 이젠 아들도 생활의 뿌리가 내리고 있으니 내년엔 눈 위를 뒹굴고 눈사람도 만들어 봐야겠다.

올라갈수록 도로 양쪽의 흰눈은 녹지 않고 쌓여 있었다. 벗은 나무 아래 하얀 눈이 덮여 있고, 미처 떨구지 못한 갈색 잎들을 그대로 달고 겨울바람에 흔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린다. 바위 사이 음지에 쌓여 있는 설경은 한여름 푸른 나무들만 바라보던 풍경과 또 다른 자연의 풍취가 나의 가슴속으로 다가왔다. 여름엔 높은 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시원한 폭포수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하얀 길같이 보였다.

공원의 자연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

다고 표현한 말이 정말 실감이 가는 곳이다. 백설이 쌓여있고, 큰 바위가 있는 사이에 푸른 색깔로 서 있는 전나무, 소나무들은 자연의 오염함을 일깨워 주었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맑디맑은 청량제 같이 잡다한 잡념들이 뒤엉킨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는 듯 했다. 흘러가는 물 속에 손을 담그니 찬물의 촉감은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복잡한 잡념들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머릿속은 쌀쌀한 냉기만이 들어와 거둬 태어나는 것 같았다. 유리알 같은 물 속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바위 위에 있는 눈을 모아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면서 두 개의 눈사람을 만들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 눈과 코는 솔잎으로 표시하였는데 모자는 씌우지 못하고 차로 돌아왔다.

차를 Tunnel View 파킹장에 세웠다. 맑고 싱그러운 나무 냄새와 청량수 같은 찬 공기를 폐 속 깊이 몇 번이나 들이마셨다. 주위를 돌아보았다. 앞에 솟아있는 El Capitan의 위력이 다시 한 번 억압해왔다. 산을 좋아했지만 암벽은 타보지 못했다. 신이 창조한 자연 앞에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 멀리 바라보이는 Half Dome은 아래쪽에서 바라보던 것보다 옆에서 바라보는 반쪽 암벽이 더 멋있어 보였고 그 위에 쌓여있는 백설과 여기저기 녹지 않고 있는 눈은 자연의 신비스러움을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있었다. 산 능선에 쌓여있는 눈과 바위 위에 눈은 또 다른 자연의 풍경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눈은 도시의 더러움을 잠시 덮어주지만, 이런 산 속에 내린 눈은 겨울 산정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저 눈이 녹아내리면서 땅속에 잠자는 식물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 후 봄 햇살이 내려 쏘이면 파릇파릇한 잎들이 솟아날 것이다.

나는 남쪽 방향으로 가는 41번 하이웨이로 차를 몰았다. 높고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눈은 더 높이 길 양쪽으로 쌓여 있었다. 울창하게 자라있는 진갈색 나뭇가지와 백색의 눈은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길옆으로 차를 세워놓고 나무 아래 서니 솜사탕 같은 눈이 내 얼굴 위로 떨어져 꼭 눈을 맞는 기분 같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흘러가는 냇물 주위에 있는 바위 위에 눈이 쌓여있고, 그 사이로 졸졸졸 흘러가는 물소리와 새의 지저귀, 풀벌레들의 속삭임, 한 포기 의 꽃잎과 풀잎에서 주는 자연의 교훈. 특히 진정한 진리는 잔잔하고 평범함 속에 있다고 한 영국의 낭만파 시인 '워어즈 워드' 말이 생각났다. 이 모든 것을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물가에 쌓여있는 순백의 눈벌판 위를 걸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와 가늘게 불어오는 바람에 눈꽃들이 펑 하면서 흩어지는 모습은 또한 눈 불꽃놀이 같았다.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 한가로이 대자연의 풍경을 즐기면서 눈길 위를 걷고 또 걸어서 이 지구 끝까지 걸어가고 싶었다.

천사랑 풍경

정찬열

새로 개업한 음식점에 갔더니 벽에 바가지가 여럿 걸려 있었다.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오랜만에 보면서 고향집에 온 듯 포근했다.

박 넝쿨이 울타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던 풍경, 보름달 아래 둥그렇게 박이 익어가던 모습, 박에 금을 그은 다음 톱으로 조심스럽게 선을 따라 박을 타던 일, 박 속으로 나물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던 광경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바가지로 술 밑바닥을 훑어낼 때 들리던 그 보드라운 소리도 껏전을 통해 들려오는 듯 했다.

바가지와 관련된 잊혀지지 않은 일이 있다. 초등학교 3, 4학년 쯤 일이다. 100여 가구 되는 우리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그 샘물을 식수로 사용했다. 물을 길어오는 일은 주로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부문 입상. 남부한국학교 교장.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산문집 『쌍코뿔이를 아시나요』(2006년, 고요아침)

어머니나 누나들의 몫이었다. 물동이는 물을 나르는 중요한 도구였다. 웅기로 된 동이도 있었으나 대부분 가벼운 양철동이를 사용했다. 도시에 가보면 남자들이 물지게로 물을 길어 나르던데, 우리 마을은 물 길어오는 일을 여자가 맡아했다.

누님은 샘에서 동이에 남실남실 물을 퍼 담은 다음 물이 출렁거리려 넘치지 않도록 바가지로 물동이에 얹어 띄웠다. 고개를 뒤로 젖혀 긴 머리채를 흔들어 모은 다음 머리 위에 또아리를 먼저 얹어 한 쪽 끈을 지그시 입으로 물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었다. 한 손으로 물동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물동이 가장자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쪽 훑어내어 흘뿌리며 걸어가는 누님의 모습. 석양에 긴 그림자를 만들며 물동이를 이고 켜 거름을 걷는 누님의 자태를 보면서 어린 내 가슴은 쿵쿵 뛰었다. 누님이 걸을 때마다 바가지는 물동이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투둥 툅 소리를 냈다.

어느 날, 허리에 책보를 질끈 매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에게 동네 형이 자그마한 쪽지를 주며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는 누나를 가리키며 전해달라고 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아무개 형이 전해달라고 하더라며 그 누나에게 편지를 붙속 내밀었다. 아, 그 편지를 받은 순간 발갱게 달아오르던 누나의 얼굴, 그리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누나의 표정이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는 얼떨떨하고 미안했다. 심부름을 잘못 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한 동안 안절부절 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시어 진학을 못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또래 동네 아가씨가 나를 만나면 얼굴을 붉히며 어색해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오는 그녀와 고샅길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다. 홍당무가 된 그녀의 얼굴,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녀의 표정에서 내

가 어릴 적 편지를 전해 주었던 그 누나의 얼굴을 기억해냈다. 어쩌면 그때 그 누나의 표정과 저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 사랑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 때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시선을 애써 피하며 바빠 걸어가는 그녀의 물동이에서도 투두둥 툭 바가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저녁 동네 뒷산에 있는 한적한 산소 앞에서 만나기로 그녀와 약속을 했다. 이를테면 첫 데이트였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려면 다른 장소가 마땅히 없었다. 어둠이 깔리는 시각 약속 장소에 나갔다. 눈발이 날렸다. 그녀와 나는 묘 앞 상석의 한 귀퉁이씩을 차지하고 앉았다. 대화는커녕 무슨 말인가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어주지가 않았다.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만 또렷했다. 눈보라치는 캄캄한 밤, 찬 돌 위에 앉아 오돌오돌 한참을 그렇게 떨며 앉아 있다가 돌아왔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라 마을을 떠나면서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그 날 저녁 풍경을 떠 올리면 잔잔한 웃음이 피어 오른다. 벽에 걸린 그 바가지가 오랫동안 걸려있어, 가난했지만 정답고 사랑스러웠던 고향의 아련한 추억들을 사람들에게 되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연이 이야기 2

최문항

연이가 1995년생이니까 벌써 열두 살이 다 됐다. 개에게 일 년은 사람 나이로는 7년 정도로 계산한다니 따지고 보면 80이 넘은 셈이다.

처음에는 사납기는 해도 영특하여 주인 말 잘 듣고 사냥도 잘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개인 줄 알고 남에게 늘 자랑하고 다녔다. 저녁에 산책하러 나가면 오가는 다른 집 개를 보고 사납게 덤벼들곤 해서 곤욕을 치렀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대로 순해진 것 같다.

뒷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연이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였다. 몸에 물 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연이는 내가 수도꼭지를 만지는 것만 봐도 질색을 하고 후다닥 자기 집 안으로 숨곤 했는데 웬일인지 오늘은 댕돌 위에서 상체만 일으키고 멍청한 눈길로 나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75년 미국 이민. 미주 《한국일보》 문예 공모 생활 수기 입상. 미주 크리스천 문학가 협회 이민 문학상 단편소설부문 당선.

쳐다보고 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연이 쪽을 향해 물을 뿌렸다. 그 때서야 마지못해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뒤쪽에 있는 자기 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연이가 왼쪽 앞다리를 조금 찢뜩거리는 것 같았다. 공원이 나 숲으로 산책하러 나갔다가 간혹 연이 발바닥에 별사탕처럼 생긴 덩불 가시가 배겨 질뜩거리면서 아프다고 킁킁거리면 발바닥을 손으로 훑어 가시를 빼주곤 했다. 혹시 발바닥에 무엇이 박혀서 그런가 하고 개집 깊숙이 머리를 처박고 있는 놈을 겨우 불러내서 발바닥을 손으로 잘 만져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연이는 아주 불편한 몸짓으로 움직였다. 가족병원에 가서 프레드니솔론 주사를 직접 왼쪽 앞다리 관절에 맞고서야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이가 밤마다 너무 시끄럽게 짹어댄다고 옆집에서 불평이 대단했는데 요즈음은 내가 들어도 별로 시끄러운 줄을 모르겠다. 글썄 우리 연이가 점잖아진 것일까? 아니 무슨 개가 학교를 다녀서 배운 것이 많아 교양을 쌓은 것도 아니고, 주변 분들의 불평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더욱 아닐 텐데 어쩐 일일까?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만사가 다 귀찮아진 걸까 아니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근무에 태만해 진 걸까?

모처럼 따듯한 오후에 연이를 시원하게 씻겨주고 털을 매끈하게 빗질해주면서 늘 하던 대로 얼굴을 마주 대고 코에다 입김을 불어주고 눈길을 서로 맞춰가며 놀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스럽게 내 손에 잡힌 앞발을 자꾸 빼고 달아나려고 한다. 연이의 하는 짓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손가락으로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살살 흔들어봤다. 치아는 아직 튼튼했다. 콧속을 덮은 털을 저치고 자세히 안을 들

여다봤다. 귀 주변과 머리털 속에 톱택같은 벌레들이 붙어 기생하는 것이 있나 일일이 만져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저만치 뛰어갔다 돌아오는 모습이 평소에 보던 날렵한 모습이 아니다. 다시 연이를 불러서 앞다리부터 몸통 배 뒷다리 꼬리까지 쓰다듬어 주면서 훑어 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

부엌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한다.

“연이는 참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옛날 자태가 하나도 변함이 없으니 말이야!!”

나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니 지금 앞다리에 테니스 엘버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릴 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유명한 젊은 가수가 자살했더라구요. 글썄! 어떤 나쁜 사람들이 어린 가수에게—인조인간 같다—라고 컴퓨터에 놀리는 글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가씨가 고민고민하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끝내는 자살까지 했다니 이 일을 어찌해야 웬단 말이우…… 허기는 뭐 요즈음 TV에 나오는 K 여배우 얼굴 보니까 참 안 됐더라구요. 이젠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에 얼굴을 너무 밀고 땡겨놔서 통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니까? 늙으면 늙은 대로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아내는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혀까지 끌끌 차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요즈음은 천국 들어가는 길목이 꼭 막혔대잖아!”

내가 슬쩍 연말 동창회에서 들은 농담을 건넸다.

“쿵쿵!! 맞았어요. 글썄,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얼굴이 다르니 통과 심사하는 천사들이 일일이 확인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지요?”

그러고 보니 연이가 두 살 때 진도전 품평회에서 “미견(미스 진돗개)”으로 뽑혔던 생각이 났다. 얼른 이층 내 방으로 뛰어올라가 10년 전 품평회 때 연이와 찍은 사진을 들고 내려와서 그때 모습과 지금 연이 모습을 비교해보았다. 얼굴이 그때보다 조금 넓어 보이는 것 말고는 오뚝한 귀, 반듯한 어깨, 쪽 뺀 늘씬한 허리, 쪽 들어간 배, 낡싯 바늘처럼 반쯤 흰 꼬리하며 두 살 때 모습 그대로였다.

다시 연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서로 눈길을 마주했다. 연이가 눈길을 돌리고 앞발을 빼려고 버둥거린다. 무엇이 불편하고 자신이 없는 걸까? 이제 서서히 육신이 노화돼가고 있는데 연이는 우리 인간들처럼 외모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걸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가을, 겨울에는 긴 털옷을 입었다가 봄, 여름에는 아주 짧은 옷으로 털갈이를 한다. 목욕 후에는 이 구석 저 구석을 입으로 빨면서 제 모습을 정성들여 가꾼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우선 앞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기지개를 켜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다리를 쪽 뺀고 몸을 바짝 낮추면서 머리를 앞으로 내 밀고 발가락도 있는 대로 쫓아—악 벌려준다. 이와 동시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한다. 마치 밤새도록 폐 속에 쌓였던 탄산가스를 일순간에 토해 내는 것 같다.

다시 몸을 뒤쪽으로 밀면서 잠깐 동안에 전신을 긴장 이완시키면서 아침운동을 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공연히 수영장 주변과 앞 뒷마당을 쉴새없이 몇 바퀴씩 뛰어다닌다.

연이의 운동하는 모습은 마치 학창시절에 잠시 기웃거렸던 중국무술 준비 운동과 많이 닮았다. 그때 사범님 말씀대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나 호랑이가 앞발을 움직여 공격하는 모습, 표범이 나무에 오르는 발놀림, 뱀이 몸을 도사리는 모습, 학이 외다리로 서서 몸의 균

형을 잡고 멀리 내다보는 동작 등을 옛날 중국 사람들이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무술의 기본자세로 발전시켰다고 했다.

연이는 절대 과식을 하지 않는다. 이틀 정도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많은 양의 개밥과 물을 주고 가도 자기 먹을 양만 먹고 고스란히 남겨 놓는다. 어찌면 이런 식습관이 몸매를 잘 유지하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시 연이 눈을 들여다보다가 연이 왼쪽 눈 검은 동자가 반쯤 뿌옇게 흐려있는 것이 보였다. ‘개에게도 백내장이 생기는 걸까?’ 아이들이 하나 둘 집을 떠나 버리고 난 후 모든 정을 연이에게 쏟고 있는 내 속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게 강충거리며 다가오는 연이는 언제까지나 두 살배기 귀염둥이였는데……. 벌써 열두 해가 지나갔으니 얼마나 더 내 곁을 지켜 줄 수 있을까?

비만과 현대병(고혈압, 심장병, 당뇨, 각종 부인병)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은 한결같이 절식과 운동이다. 비록 나이가 들어 내장 기능이 저하되고 힘은 약해졌어도 두 살 때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연이에게서 우리 부인네들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주말에는 백베이 가축병원에 가서 연이 시력검사를 해 봐야겠다.